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IMF의 성장을 상향에도, 대선 및 실적시즌 대기심리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22일(화) 미국 증시는 3분기 실적 시즌, 금리 인하 지연 우려 등의 요인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 (다우 -0.02%, S&P500 -0.05%, 나스닥 +0.18%)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7월 수치와 동일한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성장률은 지난 7월 대비 0.1%p 높은 1.8%로 전망. 국가별로 살펴보면, 실질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 등의 요인으로 미국은 0.2%p 상승한 2.8% 전망. 영국은 0.4%p 상승한 1.1%, 프랑스는 0.2%p 상승한 1.1%, 스페인은 0.5%p 상승한 2.9% 등 유럽은 대체로 통화정책 완화 영향으로 성장을 전망치 상향 조정. 다만, 독일은 제조업황 부진으로 0.0%의 성장을 예상. 한국은 지난 7월 수치와 동일한 2.5%의 성장을 전망치를 유지.

IMF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는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로존은 독일 등 제조업황 불황으로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이에 2025년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 대비 0.3%p 상승한 2.2%로 예상한 반면, 유로존은 전망치를 0.3%p 하락한 1.2%로 하향 조정. 한편, IMF에 따르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위기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 지속 등의 요인을 글로벌 경기 하방 요인이라고 지적.

미국의 초과 유동성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연준 역레포 잔액은 현재 약 2,370억 달러를 기록, 지난 2021년 5월 중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 역레포 잔액은 분기 말 효과로 일시적으로 잔액이 증가했던 지난달 말에 비해 감소하며, 이번 달 15일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3천억 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마이크로소프트(+2.08%), 알파벳(+0.65%), 메타(+1.19%), 아마존(+0.33%) 등은 상승한 반면 애플(-0.26%), 테슬라(-0.40%), 엔비디아(-0.08%)는 하락. 업종별로 살펴보면, 필수소비재(+0.9%), 통신(+0.4%), 에너지(+0.2%)는 상승한 반면, 산업재(-1.2%), 소재(-0.9%), 유틸리티(-0.4%)는 하락. 특징주로는 GM(+9.81%)의 3분기 매출액(발표치 486.6억 달러 vs 컨센서스 446.7억 달러)이 전년 대비 10.5% 상승, EPS 또한 컨센서스(2.43달러)를 상회한 2.96달러 기록 등 어닝프라이즈 기록한 가운데 급등세를 보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시장은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 가능성, 3분기 실적시즌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전일 IMF의 수정 경제전망 발표도 눈에 띄는 부분. IMF는 '25년 전세계 경제성장률(4월 전망치 3.3% → 10월 전망치 3.2%)을 0.1%p 소폭 하향했으며, 선진국 내에서는 유로존(1.5% → 1.2%), 신흥국 내에서는 브라질(2.4% → 2.2%), 멕시코(1.6% → 1.3%) 등의 성장 둔화에서 주로 기인(한국은 2.2%로 유지).

그러나 전반적인 성장을 둔화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소비 개선 효과 등으로 25년 성장률(1.9% → 2.2%)이 상향된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의 성격이 사후적 수습보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 더욱이 3분기 실적시즌 이후 수치 변화는 있겠으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익 다운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에 하방 경직성을 부여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 당선 불확실성 재확산, 연준 인사의 점진적 인하 발언 등에 따른 미국 금리 급등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며 급락 마감(코스피 -1.3%, 코스닥 -2.8%).

금일에는 엔비디아(-0.1%)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숨고르기, 미 10년물 4.2%대 돌파에도, 전일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미국 GM(+9.8%)의 어닝프라이즈로 인한 자동차 업종의 투자심리 회복 기대감 등으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장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등 주요 기업 실적 이벤트에 따라 업종별 반등 탄력이 상이해지는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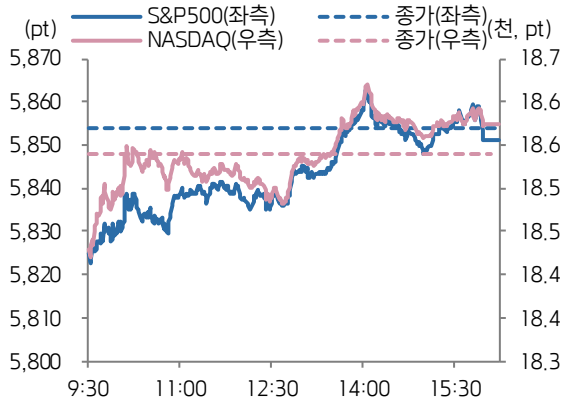
한편, 어제의 급락을 포함해 최근 국내 증시가 취약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정치, 실적 등 다수의 요인들이 존재. 트럼프 당선 시 관세정책, 재정적자 심화 등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 과거 트럼프 1기 시절처럼, 향후 예상되는 그의 관세 정책이 미국 이외의 증시에게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점증하고 있는 모습.

사실 이보다는 실적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가 동력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점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일례로, 10월 초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력 기업들의 잠정실적 발표 이후 3분기 실적시즌 뿐만 아니라 이후의 실적시즌에 대한 자신감의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 그 결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은 10월 초 319조원에서 316조원으로 약 3조원 하향된 상태이며, 이후에도 추가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으로 형성 중에 있음.

또한 코스피가 지난 9월 말 이후 장기 추세선인 200일선 이하에 머물러 있는 채 좀처럼 상향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이는 펀더멘털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추세 반전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망심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입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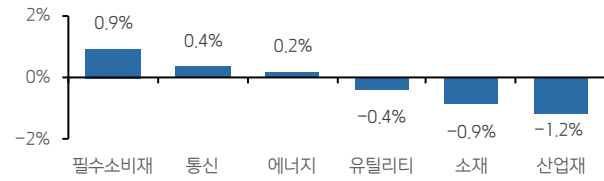
다만 실적시즌 기대감 약화는 10월 중 미국, 일본, 중국 등 여타 증시 대비 소외되는 과정에서 주가 상으로 소화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 금주 후반(목요일 이후) 예정된 국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이후 상황 반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더 나아가, 보수적 밸류에이션 지표인 12개월 후행 PBR이 22일 종가 기준으로 0.9배를 기록하며, 8월 초 블랙먼데이(0.87배), 9월 초 침체 내러티브 재확산(0.88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점도 눈 여겨볼 만한 요인. 이를 감안 시 금일 또는 금주 남은 기간 미국 대선 불확실성, 금리 상승 우려 등 매크로 및 정치 노이즈가 확산되더라도, 매도 포지션 확대 전략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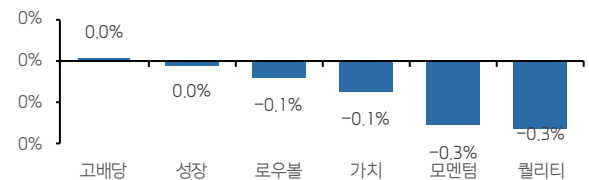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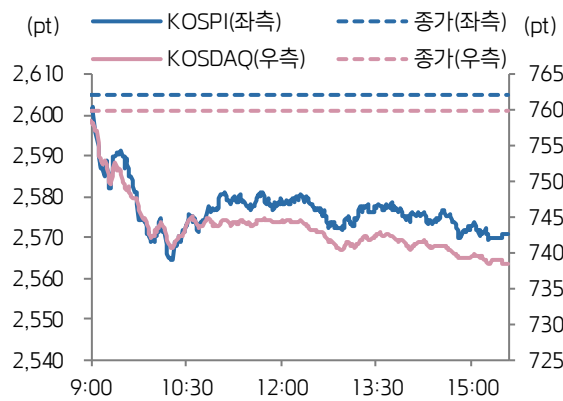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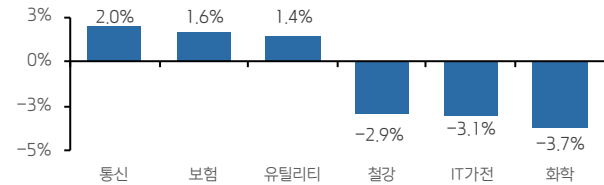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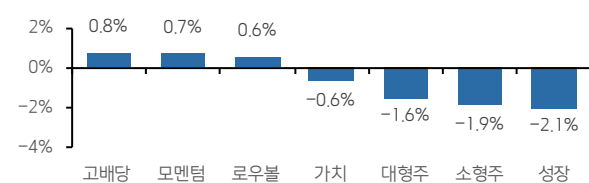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35.86	-0.26%	+22.97%	GM	53.73	+9.81%	+50.8%
마이크로소프트	427.51	+2.08%	+14.31%	일라이릴리	909.15	+0.33%	+56.72%
알파벳	165.14	+0.65%	+18.51%	월마트	82.02	+1.5%	+57.6%
메타	582.01	+1.19%	+64.92%	JP모건	224.12	+0.5%	+34.9%
아마존	189.70	+0.33%	+24.85%	엑손모빌	120.70	+0.52%	+23.82%
테슬라	217.97	-0.4%	-12.28%	세브론	150.92	+0.03%	+4.47%
엔비디아	143.59	-0.08%	+190.01%	제너럴일렉트릭	82.02	+1.5%	+57.6%
브로드컴	179.38	-0.34%	+62.43%	캐터필러	388.46	-0.52%	+33.49%
AMD	154.09	-2.41%	+4.53%	보잉	159.88	+0.04%	-38.66%
마이크론	107.82	-1.16%	+26.72%	넥스트에라	83.70	-0.4%	+40.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70.70	-1.31%	-3.19%	USD/KRW	1,379.60	+0.06%	+7.11%
코스피200	342.09	-1.31%	-4.44%	달러 지수	104.08	+0.06%	+2.71%
코스닥	738.34	-2.84%	-14.8%	EUR/USD	1.08	-0.15%	-2.17%
코스닥150	1,249.54	-3.16%	-10.33%	USD/CNH	7.14	-0.01%	+0.14%
S&P500	5,851.20	-0.05%	+22.67%	USD/JPY	151.08	+0.16%	+7.12%
NASDAQ	18,573.13	+0.18%	+23.73%	채권시장			
다우	42,924.89	-0.02%	+13.89%	가격	DTD(bp)	YTD(bp)	
VIX	18.20	-0.93%	+46.18%	국고채 3년	2.942	+3.7bp	-20.3bp
러셀2000	2,231.53	-0.37%	+10.09%	국고채 10년	3.127	+7bp	-4.8bp
필라. 반도체	5,190.71	-0.47%	+24.31%	미국 국채 2년	4.032	+0.1bp	-21.8bp
다우 운송	16,249.94	+0.37%	+2.21%	미국 국채 10년	4.208	+1.2bp	+32.9bp
상해종합	3,285.87	+0.54%	+10.45%	미국 국채 30년	4.497	-0.3bp	+46.8bp
항생 H	7,363.00	+0.31%	+27.64%	독일 국채 10년	2.318	+3.6bp	+29.4bp
인도 SENSEX	80,220.72	-1.15%	+11.05%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가격	DTD(%)	YTD(%)	
Eurostoxx50	4,939.31	-0.04%	+9.24%	WTI	71.74	+2.43%	+2.05%
MSCI 전세계 지수	851.27	-0.27%	+17.09%	브렌트유	76.04	+2.36%	-1.3%
MSCI DM 지수	3,740.27	-0.34%	+18.02%	금	2,759.80	+0.76%	+27.76%
MSCI EM 지수	1,148.42	-0.58%	+12.18%	은	35.04	+2.83%	+45.48%
MSCI 한국 ETF	60.88	-1.15%	-7.1%	구리	438.05	+0.48%	+12.59%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BDI	1,546.00	-1.9%	-26.17%
비트코인	67,498.07	-0.33%	+58.79%	옥수수	416.50	+1.71%	-17.28%
이더리움	2,632.79	-1.57%	+15.36%	밀	576.00	+0.66%	-13.9%
				대두	1,000.50	+1.09%	-20.14%
				커피	249.85	-0.74%	+32.6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2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